

<要 約>

I. 95年 아시아 經濟의 回顧

- (특징) 先進國들의 景氣 回復勢가 鈍化 樣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開發國, 특히 東아시아 國家들은 높은 成長勢를 나타내는 이른바 '世界 景氣의 兩極化' 현상이 지속되었음
 - 東南亞 國家들은 先進國 景氣 鈍化와 關係없이 그동안 심화된 域內 分業과 內需 基盤의 擴大로 고속 成長을 지속
 - 中國은 높은 인플레를 진정시키려는 緊縮 政策의 집행과 貿易 摩擦의 심화로 인해 成長률이 감소함
 - 日本은 超엔고 사태, 大地震, 金融권의 不實 債券 問題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재로 成長이 계속됨

II. 96年 아시아 經濟의 展望

- 世界 景氣의 兩極化 傾向은 96년에도 이어질 전망
 - 선진국은 2.5%대의 안정적인 成長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開發國은 수출, 國內 수요, 그리고 外國인 투자의 급증으로 6~7%대의 成長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各國의 政策 方向) 安定的인 成長率 維持와 함께 構造的인 經濟 問題 해결에 各國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成長 副作用 緩和) 아시아 국가들은 단기간 내의 고속 성장에 주력하기 보다는 인플레이, 산업기반시설의 병목 현상 등 成長의 副作用을 緩和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東南亞 국가들은 內需 膨脹과 貿易 自由化로 인한 經常收支 惡化 문제 및 고속 성장에 따른 社會·經濟的 副作用 緩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中國은 安定 成長의 정착에 계속 주력할 계획이나 「9·5계획」의 실행에 따라 건축 정책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規制 緩和) 日本은 그동안의 長期 景氣 沈滯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景氣 浮揚策과 規制 緩和 및 自由化 조치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成長率 鈍化)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각국의 緊縮 政策에 따라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선진국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東南亞 국가들은 內需 基盤 擴大와 域內 經濟圈의 확대에 힘입어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불안을 해소하려는 각국의 緊縮 政策의 영향으로 成長勢는 다소 鈍化될 전망이다
 - 中國도 安定 成長 政策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9·5計劃」 실행을 위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성장률과 물가가 완만히 상승하는 국면을 보일 전망이다
 - 95년까지 4년 연속 제로 성장을 보인 日本은 景氣 浮揚策과 円高 緩和 등에 힘입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업의 과다한 해외 진출, 고용 불안, 부실채권 누적 등으로 인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I. 95年 아시아 經濟의 回顧

- (특징) 先進國들의 景氣 回復勢가 鈍化 樣相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開發國, 특히 東아시아 國家들은 높은 成長勢를 나타내는 이른바 「世界 景氣의 兩極化」 현상이 지속되었음
 - 東南亞 國家들은 그동안 심화된 域內 分業과 內需 基盤의 擴大로 고속 成長 지속
 - 中國은 높은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는 緊縮 政策의 집행과 貿易 摩擦의 심화로 인해 그동안의 두 자리수 성장에서 한 자리수대 성장으로 진입
 - 日本은 超엔고 사태, 大地震, 金融권의 不實 債券 問題 등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가 매우 저조하여 0%대 성장이 계속됨

동아시아 지역은
선진국 경제의 부
진과 관계없이 성
장 지속

- 95년에도 선진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둔화된 반면, 아시아 국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世界 景氣의 兩極化' 현상이 계속되었음
 - WEFA는 9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7%로 추정하고 있음
 - 이 가운데 G7 국가들의 95년 실질 GDP 성장률은 2.6%인 반면 개도국은 5.1%, 특히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7.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추정됨

<95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지역	IMF	WEFA	DRI
전세계	3.8	2.7	2.8
선진국	2.5	2.6	2.4
개도국	6.1	5.1	4.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5.10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5 4th Quarter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5.11

○ 世界 經濟의 同伴化 (Synchronization) 傾向이 점차 되조되고 있음

- 8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경기의 호황과 침체라는 경기 순환이 즉각 개도국 경제에 파급되었으며, 다소 시차를 두고 일본과 유럽 지역에도 파급되는 이른바 세계 경제의 '同伴化' 傾向이 일반적이었음
- 그러나 80년대 후반이후 개도국, 특히 동아시아 지역은 선진국 경기의 동락에 관계없이 고속 성장을 지속적으로 구가하는 傾向을 보임
- 이와 같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온 것은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의존하면서 확대 성장을 지속해 왔기 때문임
 -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자 유치를 통한 공업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여 수출 및 내수 기반 확대를 이루었음
 - 동아시아 국가 상호간에 교역이 확대되면서 동아시아 경제의 선진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하고 있음

역내 分業의 심화 와 내수기반의 확대로 고속성장 지속

○ 95년에 동남아 국가들은 평균 8%에 가까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이는 무엇보다 선진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확대되었고 역내 국가간에도 직접투자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역내 산업구조 조정이 가속화되었고 수출이 순조롭게 확대되었으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가 집행되었음
- 반면 급속히 늘어나는 투자 수요와 활발한 경제 성장으로 인해 인플레이 압력이 증가하였고 대외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었음

중국 경제는 긴축
정책과 선진국과
의 무역 마찰로 인
해 경기 과열이 진
정됨

- 중국 경제는 中國 國家統計局의 발표에 의하면 95년에 10.2%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 중국 경제가 92년부터 연속 3년간 12% 가까운 고도 성장을 기록한 후 처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했음
 - 물가 상승률도 진정되어 94년의 21.7%에서 95년에는 14.8%를 기록하였음
 - 이처럼 경기가 안정화된 데에는 중국 정부가 경기과열에 따른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 93년 하반기부터 강력한 금융 긴축 정책을 계속 시행해 왔기 때문임
 - 고도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해 온 수출 급신장과 고정 투자 확대가 어느 정도 진정되었음
 - 또한 선진국과의 무역 마찰도 수출 급증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었음

일본 경제는 95년
에도 0%대 성장을
기록했음

- 95년에 일본 경제는 92년 이후 거품 경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된 장기 불황이 계속돼 95년에도 연속 4년째 0%대 성장률을 면치 못한 것으로 추정됨
 - 연초의 超엔고 사태, 고베 대지진 등으로 9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비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하는 침체 양상을 보임
 - 95년 하반기에 들어와 엔화가 약세로 반전되었으며, 사상 최대 규모 (14조 2,200억엔)의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주요국 가운데 최저치에 해당하는 0.5%까지 재할인율이 인하되는 등의 요인에 힘입어 경기가 다소 회복되었음
 - 그러나 금융기관의 부실 채권 누적에 따른 금융 불안과 규제완화의 부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지체되고 있음

II. 96年 아시아 經濟의 展望

- 世界 景氣의 兩極化 傾向은 96년에도 이어질 전망
 - 선진국들은 2.5%대의 낮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리라 전망됨
 - 개도국은 활발한 수출과 국내수요 증가, 외국투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6~7%대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리라 예상됨
- (各國의 政策 方向) 安定 成長을 維持하고 經濟 構造的 問題를 해결하는데 各國이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시아 국가들은 인플레이, 산업기반시설의 병목 현상 등 成長의 副作用을 緩和하는데 政策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東南亞 국가들은 內需 膨脹과 貿易 自由化로 인한 經常收支 惡化 問題 및 고속 성장에 따른 社會·經濟的 副作用 緩和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임
 - 中國은 安定 成長의 정착에 계속 주력할 계획이나 「9·5계획」의 실행에 따라 긴축 政策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임
 - 日本에서는 그동안의 長期 景氣 沈滯에서 벗어나기 위해 政府가 積極的인 景氣 浮揚策을 펴고 規制를 緩和하며 自由化를 촉진하는 조치들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 (成長率 展望)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긴축 政策이 실시됨에 따라 성장률은 95년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東南亞 국가들은 內需 基盤 擴大와 域內 經濟圈의 확대에 힘입어 경기가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各國의 긴축 政策 영향으로 성장세는 다소 鈍化될 전망임
 - 中國도 安定 成長 政策에 따라 성장률이 다소 둔화될 전망이나 「9·5計劃」 실행을 위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취해 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성장률과 물가 등이 완만히 상승하는 국면을 보일 전망임
 - 95년까지 4년 연속 0%대의 성장률을 보인 日本은 景氣 浮揚策과 연高 緩和 등에 힘입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 經濟 構造的 問題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1. 世界 經濟와 아시아 經濟

96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전망

- 세계 경제는 95년보다 다소 높은 3%대의 성장률이 예상됨
 -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감소됨에 따라 그동안 취해온 긴축 정책에서 중립적 혹은 완화정책으로 입장을 변경해 나갈 것으로 전망됨
 - 이와 함께 96년도 세계 경제의 회복을 알려주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음
 - 개도국의 투자·소비 수요의 확대
 -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르는 전세계적인 기술관련 투자의 확대
 - 체제전환국 경제의 경기 회복 및 성장세 지속

세계 경제의 양극화 현상은 계속될 전망

- 세계 경기의 兩極化 傾向은 96년에도 이어질 전망
 - 선진국들의 성장 기반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경기 둔화세를 벗어나는 단계여서 2.5%대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이리라 전망됨
 - 아시아 신흥 공업국들을 포함한 개도국은 96년도 수출 활성화와 국내 수요 증가, 외국 투자 급증 등의 영향으로 6~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리라 예상됨

<9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지역	IMF		WEFA		DRI	
	95	96	95	96	95	96
전세계	3.8	4.1	2.7	3.3	2.8	2.7
선진국	2.5	2.4	2.6	2.6	2.4	2.2
개도국	6.1	6.2	5.1	5.9	4.7	4.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1995.10
 DRI, World Markets Executive Overview, 1995 4th Quarter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5.11

2. 內實 經濟를 지향하는 東南亞 經濟

소비지출과 고정
투자의 확대가 경
제성장의 추진력

○ 東南亞 지역에서 내수 기반의 확대가 지속될 전 망임

-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은 내수 확대를 통하여 이루어질 전망이다
 - 국내 시장이 팽창하고 소득이 급속하게 증대하여 소비 지출은 계속 왕성할 것으로 보임
- 96년에는 GDP 구성 요소 가운데 고정 투자가 가장 빠른 성장세를 나타낼 것임
 -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실시로 인해 고정 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특히 인도차이나 지역에서는 각국을 잇는 메콩강 유역을 따라 개발자금 규모 4백억 달러에 이르는 메콩강 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임

내수 팽창과 무역
자유화에 따라 국
제수지 악화

○ 동남아 각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될 전망이다

- 수출 증가율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 주요 수출 시장인 선진국의 경기 회복이 지체됨에 따라 對선진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임
 - 노동력 부족, 사회간접시설의 부족, 주요 수출 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 달러화에 대한 각국 통화의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 경쟁력 제고가 어려울 것임
- 내수 팽창과 무역 자유화에 따라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추세가 진전될 것임
 - 동남아 국가들의 산업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본재 및 사회간접시설의 수요도 계속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GREAT ASEAN」
구상의 실행에 따
라 동남아 경제권
의 광역화가 이루
어질 것임**

- 동남아 경제권의 광역화 현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 95년 7월에 베트남이 ASEAN의 회원국으로 가입했음
 - 이로써 4억 명이 넘는 인구, 역내 총생산 규모가 5천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었음
 - 앞으로도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이 몇년 내에 새로운 회원국으로 참가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음
 - 이에 따라 ASEAN은 동남아 10개국을 포괄하는 거대 경제블록으로 부상할 것임
 - 또한 ASEAN이 추구하고 있는 아세안 자유무역지역 (AFTA)에서는 2003년까지 역내 관세를 0~5% 인하하는 것에 합의하는 등 무역자유화를 발판으로 한 경제 확대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동남아 각국의 정
책 방향이 긴축
정책에 모아질 전
망임**

- 동남아 각국의 금년도 경제 정책 방향은 경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한 긴축 정책으로 초점이 모아질 전망이다
 - 동남아 각국은 지난 3-4년간 활발한 경제 성장이 지속되어 연평균 8%의 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높은 물가 상승률과 무역 적자가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동남아 국가들의 96년 경제 정책은 물가 상승 억제나 국제 수지 적자폭 축소 등 성장의 부작용 완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동남아 국가들의 96년도 성장률은 대부분 95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 밑돌 것으로 전망됨

<동남아 각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

	싱가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95년	8.2	9.0	7.2	8.5	9.5
96년	8.3	8.4	7.1	8.5	10.0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5.11

3. 安定 成長에 접어든 中國 經濟

안정 성장 기조의
정책이 96년 경제
운용의 주축

- 중국 정부는 안정 성장 기조의 정책을 96년의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아 경제를 운용해 나갈 계획임
 - 96년부터 시작되는 第9次 經濟開發5個年計劃(「9·5計劃」)에서 중국 정부는 소비자 물가를 10%이내로 안정시키면서 9.3%의 성장을 시현할 계획임
 - 이를 위해 96년에도 은행 대출 억제, 투자 규제 등 긴축 정책을 당분간 지속한다는 계획임

96년에는 긴축 정
책이 다소 완화될
전망

- 96년에 「9·5計劃」이 원만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투자 활성화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 중국은 「9·5계획」 기간 중 기계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건설업 등을 4대 중점 산업으로 육성하여 산업 구조 고도화를 꾀할 방침임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도 연평균 38%의 초고속 성장을 유지하여 향후 5년간 투자 누계액 약 1조 8천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임
 - 연해 지역과 중서부 내륙 지역간의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내륙 20개 省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음
 - 식량 5천만 톤 증산을 목표로 농업 생산성을 연간 3%씩 높여 나가기 위해 농업 분야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임
 - 이에 따라 2/4분기를 기점으로 성장을 위한 투자 활성화 조치가 취해 짐에 따라 하반기에는 성장률과 물가 등 거시 지표가 완만히 상승하는 국면을 보일 전망이다

정치 불안이 경제
활력의 지속에 걸
림돌

- 정치 안정이 중국의 경제 개혁 및 경제 활력의
지속에 최대 변수임
 - 차기 총리 선출이 97년으로 예정되어 있고 부패
척결 운동을 통한 숙청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정
치적 갈등이 지속될 것임
 - 이러한 권력 투쟁으로 말미암아 국가 및 재정부문
의 개혁을 위한 정책 결정이 마비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음
 - 또한 정치적 민주화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鄧
小平이 사망한다면 중국내 권력 압투를 야기할 공
산이 크며 이는 외국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중
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대외 경제 정책의
변화로 투자 메리
트 저하

- 세계 경제 체제로의 조속한 편입을 위한 조치들
이 본격화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축소될 전망이다
 - 96년에는 세계 경제 체제로의 편입을 위해 內外
均等 待遇를 지향하는 중국 정부의 조치들이 본격
화될 예정임
 - 중국 정부는 연내 WTO 가입을 위한 기반 정비
의 일환으로 대폭적인 관세 인하, 합작 무역 업
체 설립 허용, 유통시장 개방, 외환 거래 자유화
등 대대적인 시장 개방 조치를 단행할 예정임
 - 국내외 기업을 국제 관행에 맞게 동등하게 취급하
는 조치들이 실행될 예정임
 - 국내 기업과 동일한 소득 세율 적용과 예외없는
관세 부과 등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한 세제 혜
택을 축소할 방침임
 - 수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이미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음
 - 투자 유치 정책의 변화로 새로운 투자처를 찾아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 기업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임

- 대부분의 기존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입확대로 인한 경쟁 격화와 세제 혜택 축소로 인한 50% 가량의 비용 부담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이들 기업들은 중국 현지 투자보다 조건이 좋은 인근 지역 국가에서 생산하여, 수입 관세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진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우회 침투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음
- 對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투자 규모를 줄이거나 수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4. 轉換點에 선 日本經濟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과 엔고 완화에 힘입어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전망

- 일본 경제에 관한 낙관론에 의하면 96년에는 일본 경제가 장기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 2%대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음
 - 대규모 공공 투자 계획과 금융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한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이 96년 상반기에도 지속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경기 부양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엔화 환율의 안정에 힘입어 수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2%대의 실질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구조적 장애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망이다
 - 일본 기업들의 과도한 해외 진출로 인해 투자 자

**경제 구조적 장애
로 본격적인 경기
회복은 어려울 전
망**

- 금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훨씬 더 많이 빠져나가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음
- 또한 대기업의 해외 진출로 인한 하청 발주의 축소에 따라 관련 중소기업의 도산·폐업이 속출하고 특히 이들 중소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경제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의 고용 흡수력 저하로 민간 소비가 소폭 증가에 그칠 수 있음
 - 91년 이후 장기 경기 침체에 따라 일본의 실업률은 95년 11월에 戰後 최고치인 3.4%를 기록했음
 - 96년에도 기업들의 사업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대적인 감원과 고용 조정이 이어짐에 따라 고용 불안과 실업률 증가 나타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 소비가 1.5%의 성장에 멈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문제가 해결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
 - 금융 기관의 부실 채권 누적은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대출을 소극적으로 운용케 함으로써 금융 완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키고 금융 기관의 도산을 초래함으로써 소비 및 투자 심리를 억제해 경기 회복을 저해하고 있음
 - 정부 공식 발표만으로도 42조 엔(일본 GNP의 10%에 해당)에 이르는 대규모 부실 채권을 정부의 공적 자금으로만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임
 - 부실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부문의 운용을 시장기구에 맡기는 근본적 제도 개혁이 필요하나 경직적인 관료제와 보수적인 금융계의 풍토로 인하여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함
-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민간 경제 연구소들의 96

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일본 정부의 전망치를 밑돌고 있음

<일본 경제 성장률 전망>

	(%)	
	95년	96년
일본 종합연구소	1.0	1.9
국민경제 연구협회	1.1	2.3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0.8	1.8
닛코(日興) 리서치센터	0.7	1.5
산화(三和) 종합연구소	0.8	2.2
노무라(野村) 종합연구소	0.4	0.4
다이와(大和) 종합연구소	0.8	2.4

高비용 경제 구조의 체질 개선이 경기 회복의 관건

- 일본 경제가 장기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맞는 데에는 경제구조의 개혁이 관건임
 - 일본 경제의 불황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단계가 아니라 경제의 근본 구조가 조정되는 국면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
 - 93년 10월에 저점을 지난 경기가 18개월만에 꺾여 戰後 가장 짧은 호황을 기록하였음
 - 최근 일본 경기 순환의 특징으로는 주택 투자와 소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재고 조정이 끝나 민간 설비 투자도 전년 대비 마이너스 증가폭이 축소되는 등 경기회복 조건은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력이 약하다는 점과 호황기간이 짧아진 것이며 이는 일본 경제가 근본적인 구조 조정 국면에 직면해 있음을 의미함
 - 특기할 만한 점은 지금까지 일본 경제의 효율성을 지지해온 구조적 요인들이 이제는 오히려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임

- 정부의 경쟁 제한적인 산업 정책과 高비용 고용관행으로 민간 부문의 경쟁 체질이 약화되어 있음
- 일본의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부문의 활력 회복에 달려 있음
- 미야자키 이사무(宮琦勇) 일본 경제 기획청 장관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 완화와 민간의 자율화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2000년까지 일본의 GDP 증가율은 「新經濟5個年計劃」에서 제시한 3%에 크게 못미치는 1.75%선에 머물 것이라라고 경고한 바 있음

(김 연 호)